

성남 챔프전 진출 “전북 나와!”

“파리아스 매직 깨 정말 기쁘다”

● **승장 성남 신태용 감독** = ‘파리아스 매직’을 깨 너무 기쁘다. 10명이 뛰며 투혼을 보인 선수들에게 감사한다. 포항의 측면이 강점이자 약점인데, 수비진 뒤통간을 노리는데 역점을 뒀다. 필드가 미끄럽고, 발목 부상을 입은 김정우의 컨디션이 좋지 못한 게 안타깝다. 군 입대로 김정우의 챔프전 진출은 사실상 어려운 전망이다. 리ndon 치지, 장학영, 이호가 빠지는데 솔직히 아무런 생각이 없다. 전북전 명단을 짜봤는데, 베스트는 아니더라도 한 번 부딪혀 볼 만 하다.



‘매직’은 운도 따라야 한다. 판정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부임하면서 ‘사고 치겠다’고 했는데, 현재 진행형이다. 오늘 비가 많이 내려 선수들의 체력이 바닥났을 것 같다. 챔프 1차전 때 내가 전북이라면 무조건 승부수를 띄울 것 같다. 그러나 2009년 마지막 홈 경기인 만큼 수세적으로 플레이할 생각은 결코 없다. 철저히 준비하겠다.

“우승 후유증…마무리 미흡했다”

● **패장 포항 파리아스 감독** = ‘결정력’에 아쉬운 점이 많았다. 골 운이 유독 따라주지 않았다. 전반까진 잘 했지만 마무리가 미흡했고, 침착함과 집중력이 부족했다. 성남이 전반 3차례 슈팅을 했는데 물리나의 프리킥은 정말 위험한 위치에서 내렸다. 성남이 한 골을 넣고 미드필드를 수비적으로 바꾸면서 스테보가 플레이하기 어려웠다. 중원에선 우리가 압도했으나 공격진이 상대 수비를 뚫지 못해 어려웠다. 우리의 경기 감각이 부족했다곤 생각하지 않는다. 어쩌



면 ‘우승 후유증’이라 할 수 있겠다. 특정 대회 우승 이후 집중력이나 평정심을 강조하며 선수들을 다독이기에 부족했다. 미끄러운 필드보다 찬스를 많이 놓친 우리들이 못했다. 전반 이후 침착함을 잘 살려서 공격하자고 주문했는데, 시간이 흐르며 조금해했다. 성남이 시즌 중반 이후 팀이 잘 풀렸고, 해결사 영입으로 잘 풀렸다.



우승 향한 어깨동무 성남 선수들이 포항을 1-0으로 물리치며 챔피언결정전 진출을 확정된 뒤 어깨동무를 한 채 환호하고 있다.

포항 | 김종현 기자 won@donga.com

오발탄 남발 … 파리아스 매직 Stop!

사커 브레이크

결국 ‘파리아스 매직’이 성남 신태용 감독의 ‘무전기 매직’을 꺾지 못했다. 포항은 29일 2009 K리그 챔피언십 플레이오프 성남과의 경기에서 0-1로 패해 챔프전에 나서지 못하게 돼 ‘트레블 (3관왕)’ 달성에 실패했다. 또한 홈경기 무패행진도 24경기 (15승9무)로 막을 내렸다. 홈에서 매우 강한 모습을 보였던 포항은 골 결정력이 눈에 띄게 떨어지면서 경기를 완벽하게 지배하고도 아쉽게 챔프전에 오르지 못했다. 하지만 포항은 2009 FIFA클럽월드컵에서 또 다른 ‘트레블’에 도전한다.

●아쉬운 골 결정력

포항은 홈에서 강하다는 것을 경기 내내 보여줬다. 포항은 미드필드를 장악하며 경기의 주도권을 완벽하게 잡았다. 체력적으로 지쳐있는 성남의 수비라인 뒤통을 공격하는 전략이 먹혀들면서 왼쪽 노병준과 오른쪽 테넨손의 측면 돌파가 효과적으로 이어졌다. 골과 다름없는 좋은 찬스를 많이 만들어내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포항의 슈팅은 정확도에서 아쉬움이 컸다. 너무 자신감이 넘쳤던 탓인지 선수들의 몸에 힘들여갔고, 슈팅이 공중으로 뜨는 경우가 많았다. 포항은 총 28개의 슈팅을 시도했지만 유효 슈팅이 4개에 불과할 정도로 슈팅 정확도가 떨어졌다. 파리아스 감독은 “집중력과 침착함, 슈팅 타이밍 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좋지 않은 날이었던 것 같다”고 원인을 분석했다.

●조급한 경기 운영

포항, 28개 슈팅 했지만 유효슈팅 고작 4개
수적 우세속 조급한 플레이 정교함 못살려
내달 10일 클럽월드컵 출전 해피엔딩 각오

포항은 후반 들어 수적 우세에 놓이는 등 유리한 입장에서 경기를 풀어나갈 수 있게 됐다. 후반 27분 성남 장학영의 퇴장 이후 포항은 완벽에 가깝게 경기를 지배했다. 하지만 조급한 플레이가 아쉬웠다. 선수들이 동점골을 뽑아내기 위해 플레이를 서두르면서 포항 특유의 정교함이 사라졌다. 오히려 수적 우세에 놓인 이후 서두르면서 완벽한 득점 찬스를 만들는데 실패했다. 중거리 슈트를 통해 밀집수비를 뚫기 위해 안간힘을 다했지만 서두르다 보니 정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파리아스 감독은 “좀 더 침착하게 경기를 풀어나가지 못한 게 아쉽다”라고 말했다.

●이제는 클럽월드컵

포항은 클럽월드컵을 남겨두고 있다. 대륙별 클럽 대항전 챔피언이 출전하는 클럽월드컵은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두바이에서 다음달 10일부터 20일까지 열린다. 포항은 6강전에서 아프리카 대륙 챔피언 마잠베(콩고민주주의공화국)와 맞붙는다. 파리아스 감독은 “오늘 경기에서 패했지만 아직 경기가 남아있다. 선수들이 많이 지쳐있고, 힘든 과정에 있다”며 “하지만 오늘 패배를 거울삼아 준비를 잘해서 클럽월드컵에서 좋은 경기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포항 |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PO 빅마우스

●늦게 들어가면 그 만큼 늦게 제대하잖아요.(성남 김정우. 챔프전에 올라가면 입대가 미뤄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돌린다고 하자)
●인천전은 120점, 전남전은 70점이었다고 하니 인정

하더라고. 오늘은 기대해도 돼.(성남 신태용 감독. 라돈치치 플레이에 대해)

●저희는 홈 2연전을 대비했습니다.(포항 이종하 지명탑장. 2위로 통과한 까닭에 플레이오프와 더불어 챔피언결정 1차전까지 모두 준비했다고)

편집 | 인도영 기자 ydalone@donga.com

어떤 사망이든 3억, 대중교통 이용중 사망시 6억! 교통사고 사망시 4억5천만원 등 모두 일시금 지급 (단 2세이하 자살 및 고의적 사고 제외)

홍국생명 (무)누구나 하나씩 정기보험
타보험 있어도 중복보장
연간100만원한도 소득공제

큰병 걸렸을때도 진단금 든든히
고액암 8천만원 / 일반암 4천만원 (40세이상 10만원/30만원)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4천만원 (40세이상 10만원/30만원)

진단금 4천만원을 각각 보장한다 (진단급여금은 최초 1회에 한하며 1년 이내 진단시 50%지급)
가입연령은 만15세~60세이고, 연간 100만원 한도내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월 보험료는 30세여성 49,800원, 남성 68,600원 / 35세여성 62,000원, 남성 90,600원 / 40세 여성 76,600원, 남성 130,400원이다.
* 주보험3억원+(무)플러스암진단특약(갱신형), (무)플러스2대질환특약(갱신형)각2천만원/80세만기 전가입 순수보장형, 10년단위 갱신형
*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암보장 계산일은 보험계약일로부터 계약일을 포함한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다.

24시간 무료상담 080-420-8585
생명보험협회 심의결과 제2009-2340호 (2009. 10. 29)

사망보험금을 일시에 크게 지급하는 홍국생명 (무)누구나 하나씩 정기보험이 가족의 앞날을 위해 꼭 필요한 보험으로 각광받고 있다. 가정이 불의에 사망하거나 암, 급성심근경색증, 뇌출혈 등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을 때 고액으로 충분한 보장을 해주기 때문이다. 자연사, 질병, 사고든 원인이나 이유에 상관없이 가입 첫날부터 사망하면 3억원의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교통사고로 인한 재해사망 때 4억5천만원을, 시내버스, 마을버스, 택시 지하철

여객기 여객선 등 대중교통 이용중 재해사망 때 6억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사망보험금 지급대상에서 2년 이내 자살 및 고의적 사고 제외). 암진단 특약도 “든든한 보장” 그 자체다. 백혈병, 뇌암, 골수암 등 고액암 진단시 8천만원을, 일반암(고액암 제외) 진단시 4천만원을 보장하며, 갑상선암 및 결계성종양 진단시 6백만원, 기타피부암 및 상피내암 진단시 4백만원을 지급한다.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등 한국인이 잘 걸리는 2대 질병도 특약으로

운전자의 동공을 인식해 졸음을 쫓을 순 없을까?

운전자 상황을 센서링해 차가 알아서 문을 열어줄 순 없을까?

핸들을 잡지 않아도 차가 자동으로 움직일 순 없을까?

내일의 자동차를 위한 첨단기술, 누가 준비하고 있을까?

모비스의 첨단기술과 미래형 전자제어기술이 만나
내일의 자동차생활을 더 안전하고 즐겁게 만드는 드라이빙 사이언스의 세계,
더 새로워진 모비스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driving science

HYUNDAI
MOBIS
driving science